第七千一八十八號 (1945. 12. 20 第三種郵便物認可) (1946. 6. 18 軍政廳登錄第二五號) (火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 BO 檀紀四千二百七十九年十月二十九日 (日刊)

# 朝鮮日報

## 社說 貿易의 計劃性

一

우리의 建國計劃에 있어 가장 重要한 것은 經濟的 自立策이오 經濟的 自立을 爲하여는 國內産業의 發展을 圖謀하는 積極施策의 一面과 外國과의 物資交流를 制限調整하는 消極的 施策의 두 一面을 들수 있다. 그런데 이 消極面인 貿易政策이란 元來가 國家經濟를 떠날수 없는 것이지만 더구나 우리의 建國計劃에 있어서는 徹底한 自立經濟政策을 一步라도 떠나서는 絶對로 있을수 없는 일이며 오직 그 關聯에서만 생각할수 있는 것이다. 輸出에 있어 剩餘物資일것은 勿論이거니와 外國物資를 輸入하는데 있어서는 우리의 經濟建設에 不可缺의 物資거나 國民生活上 避치못할 最小限의 物資가 아니면 이것을 바라는 일수없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리의 建國에 있어 緻密한 計劃經濟의 樹立이 要望되는 同時에 貿易의 計劃性과 그 政策의 强行이 또한 切實히 要求되는 바이다.

二

우리는 解放後 正式으로 貿易을 갖지 못하였다. 近近 正式貿易이 始作되리라 하니 行政當局은 自立經濟建設의 大目的을 좇음으로 그르침이 없이 이 政策의 實行에 있어 充分히 그 精神을 살렸을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 正式貿易이 開始되기 以前에 일어난 若干의 事態에 對하여는 今後에 開始될 貿易政策과 어떤 關聯下에서 이것을 理解해야 할 것인가. 對中密輸貿易은 지난 四月부터 六月까지 三個月間에 이미 千五百萬圓의 入超된 것이 當局發表로 나타낫거니와 그 以前과 그 後의 것을 合하면 이것의 幾十倍가 되지 않을가 하는 것이 一般의 推測이며 仔細한 數字를 갖지 못한 것이 大遺憾이나 仁川港에 있는 中國船은 웨이다지 오래 머무르고 있으며 中國商人의 交涉이란 大體 무엇을 意味하는 것인가. 萬一 漠然히 거위 우리나라 港口에 그러은 物資요 [illegible] 남부지 안타는 程度로 默認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今後의 貿易政策에 對하여 杞憂이기를 바라나 一點의 念慮를 禁치 못하는 바이다.

三

自立經濟政策은 必然的으로 國民生活에 있어 어느 程度의 忍耐를 要求한다. 우리에게는 不足을 忍耐하면서라도 自作自給을 目標로 한 經濟建設이 切實히 要求되고 있는데 果然 今後에 開始될 貿易政策은 國內産業의 發展을 助長하는데 그 眼目이 노여있으며 國民生活上 絶對不可缺의 物資라는데 重點이 노여있는가. 우리는 어떤 國民의 것임을 莫論하고 所謂 密船은 斷然코 返送시켜야만 것을 主張하는 바이거니와 이와 가는 密船을 容納한다는 것은 그 物資의 必要不必要를 莫論하고 곳 現在의 貿易行政의 無計劃性을 말하는 것이며 將來의 貿易行政에 있어 一點의 念慮를 갖게하는 것임을 指摘치 안을수 없다. 勿論 臨時政府의 樹立前이다 全體的이오 完全한 經濟計劃은 지금 云謂할 때가 안일지라도 적어도 外國物資를 輸入하는데 있어서는 우선 一定한 計劃을 가져야 할것이오 그 計劃에 依한 物資輸入에 있어서는 最小限에 곳칠것이며 이 最小限의 物資는 가져오면 언제나 올수있는 것이 아니고 確實히 只今 아니면 안될 것이라야 할 것이다. 萬一 漠然히 生活上 必要한 物資라하여 輸入하기로 한다면 不過數種의 生活道具로도 一朝에는 債務國이 되고 만다는 事實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그때에도 나貿易에 民衆의 關心이 기른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貿易行政에 있어 國內産業을 發展시키는데 꼭 必要한 物資를 輸入한다는 精神을 充分히 살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强調하는 바이다.

## 中央軍安東占領
### 煙台에선 市街戰激烈

[北京廿七日發 AP合同] 政府當局言明에 依하면 中央軍은 廿五日밤 朝鮮滿洲國境의 中共軍重要占據地安東市를 無血占領하였다하며 杜聿明將軍麾下의 中央軍의 同市占領은 豫定보다 二日이나 빨렀다 한다

[南京廿八日發 AP合同] 北平來報에 依하면 中央軍은 이미 煙臺市街에 突入하야 市街戰이 展開되였다하며 當地新民報도 「中央軍은 安東占領後 中共軍의 煙臺外郭陣地로 突入하야 煙臺占領을 期하고 있다」라고 報道하였다 또 一部報道에 依하면 卽墨(靑島三十哩北東方)間의 道路는 破壞되였다 하는데 이에 앞서 中共側代辯人은 「煙臺에 對한 中央軍의 海陸兩面攻擊은 今月末까지에는 重大한 結果를 齎來할 것이다」라고 言明하였다

## 中蘇協定符合
### 孫立法院長言明

[南京廿八日發 AP合同] 國共和平交涉再開調停에 努力中인 小數黨側은 廿七日中央軍의 安東占領(廿六日夜國防部서 正式確認이 있었다)을 契機로 發生된 新事態를 檢討하기 爲하야 緊急會談을 開催할 豫定이라 한다 한편 中央通訊報道에 依하면 國府立法院院長 孫科博士는 中央軍의 安東占領은 中蘇協定規定에 符合하는 것이다 따라서 如何한 者라도 이것을 阻止할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한다

## 中共軍認定

[南京廿八日發 INS合同] 延安情報에 依하면 中共軍은 朝滿國境要地安東의 失陷을 認定하였다 한다 또 中共當局은 奉天東南二百五十哩地點의 安東으로부터 中共軍이 撤退한 것은 中央軍과의 戰鬪로 因하야 惹起될 市民들의 損害를 막기 爲하야서라고 宣明하였다 한다

## 安東占領과 對蘇關係

[北平廿八日發 AP合同] 當地中立側「옵써ー버」言明에 依하면 滿洲의 中共軍要衝安東을 中央軍이 占領함으로 因하야 中央軍幹部들은 國際的紛爭이 惹起될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다. 그리고 最近奉天으로부터 到着한 「옵써ー버」言明에 依하면 中央軍幹部들은 蘇聯軍 [illegible]

## 알타密約과 莫府決定
## 美英兩國에 取消要求
### 李承晩博士談話

二十八日 李承晩博士는 三八線을 劃定한 「얄따」密約은 「카이로」「포쓰담」會談에 違反이며 莫府三相會議決定은 朝鮮信託統治를 말한것인즉 이것을 取消하라고 出入記者團에게 다음과 같은 談話를 發表하였다

對內對外에 우리의 가장 어렵던 問題가 至今은 順調로 解決될 時期가 왔나니 所謂信託統治라는 悔辱의 어떤 障礙物도 우리만 잘하면 削除될 機會가 目前에 當到하였다 아ー놀드少將이 華府에서 몇일前에 宣言하기를 韓國問題를 美蘇兩國의 司令長官들로는 解決될수 없나니 兩國政府에서 直接討議하야 決定하는 것이 可하다 하였나니 우리의 對外한 大勢가 이만치 變更된 것이다 그럼으로 카이로와 포쓰담 宣言에 違反되는 얄타密約과 三相決議를 取消하라고 우리는 英美兩國政府를 向하야 請求하는 中이다 우리는 自初로 信託統治를 絶對反對하여 왔고 그동안 世界公論이 따라 變하야 우리를 贊同하난 親友들이 만히 생겨는 中이니 우리 全民族이 이를 主張하고 要求하면 이른 支障을 排除할 前途가 열닐줄 밋는다

## 高踏的措置必要
### 流血의禍亂을防止하라면
### 林炳稷氏「번즈」長官에 書翰

[華盛頓二十八日UP發朝通] 韓僑委員會 林炳稷氏는 朝鮮의 流血을 冒免하기 爲하여 即時某種의 高踏的 對策을 講究할 것을 要求하는 十月二十六日附「번즈」國務長官宛書翰을 公開하였는데 그 內容은 아래와 같다

「貴下여 朝鮮駐屯美蘇兩軍當局이 「民主主義」와 「言論自由」라는 말로 因하여 對立狀態에 따저있으며 朝鮮에 獨立을 賦與하리라는 「카이로」宣言을 實施할 解決策이 發見되지 않고 있는 限 朝鮮에 流血과 禍亂을 冒免하기爲하여 即時新規의 高踏的措置가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明白한 事實입니다 따라서 南朝鮮民主代表議院의 일로도 本書翰을 [illegible] 上몸하여 現在朝鮮民族의 平和와 安全과 獨立에는 支障을 주고 있는 南北當局間의 休戰狀態를 克服하고 美國務省과 蘇聯外務省間에 即時 [illegible]을 取하기를 懇願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朝鮮民族의 意思表示를 가로막고 있는 障壁이 嚴存하고 있다는 것을 知悉하고 있읍니다 然이나 「트루만」大統領指導下의 美國政府外交政策은 朝鮮人의 소리를 못듯게 하고 그들의 悲慘하고 絶望的인 不幸을 認識하고 이에서 그들을 匡救할 것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 媾和會議對해 베빈英外相談
## 難關이 있은 後 眞正한 平和來

[파리二十八日發로이타合同] 十一月四日「뉴욕」에서 開催될 四相會議에 出席次로 出帆準備中인 「베빈」英外相은 往訪한 新聞記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巴里媾和會議에 있어서 燥急히 媾和條約의 起草를 보았드라면 그것은 오히려 眞正한 平和가 않이였을 것이다 나는 우리가 豫期하였든 速度로 媾和條約起草에 進展을 보지 못한데 對하야 何等失望을 느끼지 않을뿐만 않이라 오히려 諸難關에 逢着하면 [illegible] 難關을 暴呈시키어 率直하고도 眞摯하게 對한 後에야 비로서 우리가 冀求하는 平和를 樹立할수 있고 그 平和는 永遠히 或은 적어도 數十年間 持續할수 있을 것으로 믿는 바이다」

## 美誘導兵器研究所

[華盛頓二十八日UP發朝通] 陸軍航空隊發表에 依하면 美國은 武器局援助下에 近近誘導兵器研究所를 新設하리라고 한다 目下當局에서는 精確性과 速力距離에 있어서 獨逸의 V1號以上의 「로켓트」彈을 設計中이라고 한다

## 人事消息

△李龍在氏(軍政廳庶務處建築署長) 新任人事次來社

## 慶北民擾의 全貌
### 事件內容과 그後處理方針
### 大邱治安總司令官 韓鍾健氏談話發表

大邱를 中心으로 한 嶺南一帶의 民擾事件에 關하여서는 警務部長의 發表가 數次있은 後로는 그後의 人命 財産等의 被害調査나 그後의 事件處理의 民心收拾은 果然 어떠케 되고 있나 一般의 큰 關心을 끌고 있는 中 그間 警務部公安局長으로 現地에 派遣된 大邱治安總司令官 韓鍾健氏가 談話를 發表하야 慶北地方一帶의 事件內容과 그後의 處理方針을 더 詳細히 밝킨바 있기에 여기에 그 全文을 紹介코저 한다 談話中 慘酷한 部分은 發表를 躊躇케 한바두 없지 안호나 이미 公表된 當局文書요 世間에 事實上 誤傳되고 있는 點으로 보아 責任當局者의 發表文이 될수 있는데로 事件을 事件대로 보며는 資料의 하나가 되는 同時에 보다 反省할 바를 反省할 큰 것이 되기를 期하야 紹介하는 바이다

나는 今般大邱에서 일어난 暴動事件의 治安復舊를 爲하야 警務部長의 特命을 받고 이달 三日에 이곳에 到着하였읍니다 내가 到着한 때에도 大邱隣接地方에서는 아직 暴動이 일어나며 電話不通으로 各地方의 狀況을 도모지 알수 업는 까닭에 其事態가 매우 憂慮되였읍니다 그럼으로 나는 今番事變中 第一 甚한 [漆]谷川倭館方面에 卽時應援隊를 遣하고 나머지 應援隊는 三方面으로 나노아 慶州浦項 盈德方面과 軍威義城 安東醴泉 榮州奉化方面과 星州善山金泉尙州聞慶三方面을 나노아 派遣하였읍니다 그러하야 今月六日에는 道內全部의 警察署를 復舊하게 되였읍니다

우리는 昨年八月十五日 聯合國의 大勝利로 日本의 虐政으로부터 解放은 되였으나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自立自存自給自足할만한 經濟施設은 殆無하고 一部旣存施設된 生産機關도 原料와 技術問題로 全혀 休業狀態에 있어 目前에 必要한 生活必需品도 外國에 依存하게 않으면 안이 되는 形便에 있읍니다 一便 惡性인 平價의 影響은 天井不知의 物價騰貴로 因하야 民衆은 只今塗炭에서 苦痛中이을시다 마욱이 日常生活에 가장 必要한 食糧이 其極度로 逼迫하야 飢饉에 當面한 사람도 各地에 散見되는 現狀입니다 이러한 急迫한 經濟事情과 食糧事情을 奇貨로 一部惡質分子에 있어서는 이 時機를 利用하야 自己政黨勢力扶植하야 惡用할 野慾에 逆宣傳과 謀略戰을 展開하야 無智曚昧한 勞農民을 煽動敎唆하야 쌀을 달나는 旗幟下에 南朝鮮全體의 鐵道從業員을 爲始하여 各生産機關의 總罷業을 煽動케 하였읍니다 慶北大邱에서도 其餘焰을 받어 九月二十九日에 이르러 鐵道從業員 罷業을 爲始하야 大邱府內 各工場職工의 罷業이 漸次로 擴大되였읍니다 其潮流를 一層더 巧妙하게 惡用하여 其怨恨을 警察機關에 轉嫁식혀 여러분이 平素에 警察에 對한 些少한 感情과 모든 不平不滿을 暴動으로 勃發식혀서 前古未曾有한 大暴動을 이르켰읍니다 이 大暴動으로 因하야 同族間의 死傷者 無慮數百에 達하고 灰燼破壞된 財貨가 數億에 達하게 되였음은 建國途上에 있어 一大不祥事라 아니할수 업읍니다 이 總罷業의 目的이 勞賃引上 家族手當增額 從業員四合 其外家族三合의 食糧配給等 要求條件의 解決에 있고 그의 正當한 生活權의 要求에 있어 誠意와 努力을 다하야 妥協性을 가진 合法的 行動을 取하였다면 爲政當局도 이에 對한 對策樹立과 活路打開의 萬全之策이 있을줄 압니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罷業行動은 軌道를 버서나 比較的 文化水準이 低級이며 따라서 時局에 對한 判斷力이 薄弱한 愚昧大衆을 煽動하야 그 神聖한 學園에서 學業에 餘念이 없는 天眞한 學生群을 모다 殺戮 破壞掠奪等等 殘酷한 直接行動을 敢行게하야 殉職警官 四三名 負傷者가 九九名 行方不明者 一三名 警察廳舍及支署의 燒却破壞한 것이 五一個所이며 警官의 私宅을 破壞한 것이 二九二件 警官私財及 器物掠奪 五一二件이고 其他官公吏와 地方富豪及右翼側要人의 殺害 掠奪等으로 其被害者 四五名 負傷者가 九七名 家屋放火及 破壞와 家財의 掠奪이 四四九件입니다 이 被害中에는 警官의 發砲에 依한 被害와 暴民의 暴行에 依한 被害를 合한 것입니다 其被害掠奪의 手段에 있어 單只 木棒 鐵片等으로 打殺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殺害當한 屍體에 對하야 頭部를 斬切하며 面皮를 割하고 四肢를 絶斷하야 恰似蠻族의 人肉相食인 程度에 到達한 悲慘한 容或打毆를 發見하고 入院治療者를 探索하여 此亦 探索打殺等 慘虐無道한 方法을 取하였으니 이 어찌 天人共怒의 容恕할 餘地가 있으리요 各地方慘狀中 가장 甚한 地方은 永川, 倭館, 善山, 星州, 軍威警察等인데 永川, 倭館에 對하야서는 此後로 미루고 其他에 關하야 其狀況을 簡單히 말삼드리면 善山, 龜尾地方暴民들은 十月三日 午前十時頃 善山警察署를 接收하고 善山警察署의 看板을 破壞하고 其代身 善山人民委員會保安署라는 看板을 내걸고 警察署留置場에는 署長以下署員二十餘名의 地方右翼政黨要人들을 拘束하고 部署와 人事까지 決定하고 所謂人民裁判을 開始하여 國民의 人權을 自由로 유린하고 있을때 十月五日 午前一時頃 京城으로부터 來到한 應援部隊와 約三十分間交戰後 警察廳舍를 奪還하여 留置場에 拘束되여 死刑에 直面하고 있든 十數名의 生命을 救助하고 同時에 地方住民의 生命財産을 擁護케 되고 星州地方에서는 十月三日午後十一時頃 群衆三四千名이 警察署를 包圍하고 代表者五人이 署長에게 對하야 警察署의 武器庫의 열쇠를 引渡하고 警察職員은 署長以下 總罷業하라는 言語道斷한 無理한 條件을 强要함으로 警察署長은 斷乎한 態度로 이 條件을 一蹴하였읍니다 그러자 群衆은 署長 搜査課長 刑事三名을 拉致하여 署長官舍에 監禁하고 同胞同族間의 殺傷으로 말미암아 對抗치 안은 署員二十餘名을 逮捕하여 留置場에 留置하고 一面 留置場에 放火하야 生火葬하기로 計劃하고 揮發油一罐을 準備하여 留置場附近에 散布하고 放火하려든 瞬間 天心이 무심치 않음으로 神助를 얻어 應援部隊到着하여 激戰을 한 後 廳舍와 職員들을 救出하고 軍威地方에서는 十月二日에 暴民들은 軍威警察署를 占領하고 署長 郡守 郵便局長 面長 各支署長 學校長 食糧營團出張所長及 右翼團體要人等 約三十名을 留置場에 拘禁하고 星州 [illegible] 와 同一한 手段으로 放火하야 生火葬에 處할 計劃으로 十月四日午後三時 忠北應援部隊約三百名이 到着하여 三十分間 交戰後 廳舍와 署員及地方民을 救出하게 되였읍니다 [illegible] 建設과 秩序를 [illegible] 要求하는 建國初期에 있어 一大不祥事라 아니할수 없읍니다 우리 同族이 서로 罪惡으로 相剋相殺한 理由가 어데 있겠읍니까 참으로 遺憾千萬이올시다 이러한 事態는 外國人에게 정말 수치이며 우리의 獨立을 遲延시키는 原因이라고 볼수 있는 한편 警察當局에서는 이 不祥事를 하로밧비 急速히 收拾하야 地方治安을 恢復하도록 努力하고 있읍니다 一面 地方여러분께서도 同胞愛와 民族愛로 過去의 摩擦을 一蹴하시고 誠心誠意로 事態收拾에 協力하여 주시는 德分으로 治安이 意外로 急速히 復舊되였음은 衷心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올시다 그러나 一部主謀的 役割을 敢行한 惡德分子에 있어서는 治安恢復이 自己罪惡暴露와 檢擧를 憂慮하여 復舊를 願치 않으며 오히려 이 混亂狀態를 持續식히려고 擴大를 願하는 一面 謀略宣傳으로 全般事件에 關係된 사람이나 아니한 사람이나 逮捕만 하면 모다 銃殺을 식히니 모다 山으로 逃避하라 하며 金日成將軍이 三八線以北의 大軍을 率하고 慶山郡河陽地方에까지 當到하였으니 勞農大衆은 우리를 따르라 그러치 않으면 銃殺을 當한다고 無根之說로 警察과 民間의 良民을 誘導하야 離反을 策動하니 참으로 遺憾千萬이올시다 [illegible] 附和雷同한 사람도 [illegible] 群衆心理로 現場에서 逃避한 사람들은 山中으로 [illegible] 其家族으로 하여금 警察에 對한 怨聲을 助長시키고 있으니 이러한 謀略宣傳에는 絶對注意하시야 합니다 警察은 [illegible] 報復的 手段이나 或은 [illegible] 酬的感情은 絶大排擊하고 公平無私를 至上命令으로 하고 一罰百戒의 原則下에 主謀的 役割을 한 사람과 今般事態에 關하야 殺傷放火破壞掠奪等에 關하야 [illegible] 活動을 한 사람만 檢擧彈壓할 方針이며 [illegible]

[illegible] 아니하였을뿐 아니라 或은 警察의 態度가 [illegible] 過度한 點이 있다면 [illegible] 處理하고 있읍니다 [illegible] 犯人의 平素行動과 今後의 改悛程度를 參酌하야 純眞한 同胞에게 對하야서는 [illegible] 大局的 見地에서 善處할 方針이오니 各位는 事件處理에 充分히 理解하시옵고 協力하야 주시옵기를 切望하나이다

## 韓美會談續開
### 政黨代表는不出席

左右合作委員會委員과 美軍側으로 組織된 韓美共同會談은 二十八日에도 德壽宮石造殿內에서 續開되고 南朝鮮非常事態에 關한 諸問題를 가지고 討議中이며 九政黨代表의 出席은 結局은 浪說이였다

## 自由新聞社長 申翼熙氏就任

多年間 海外에서 獨立運動에 獻身하다가 昨年 臨政要人으로 歸國한 申翼熙氏는 今番 自由新聞社社長으로 就任하였다

推薦狀

京城商工會議所議員 立候補者 李仁泰

右最適任者로 認定하고 推薦함

一九四六年十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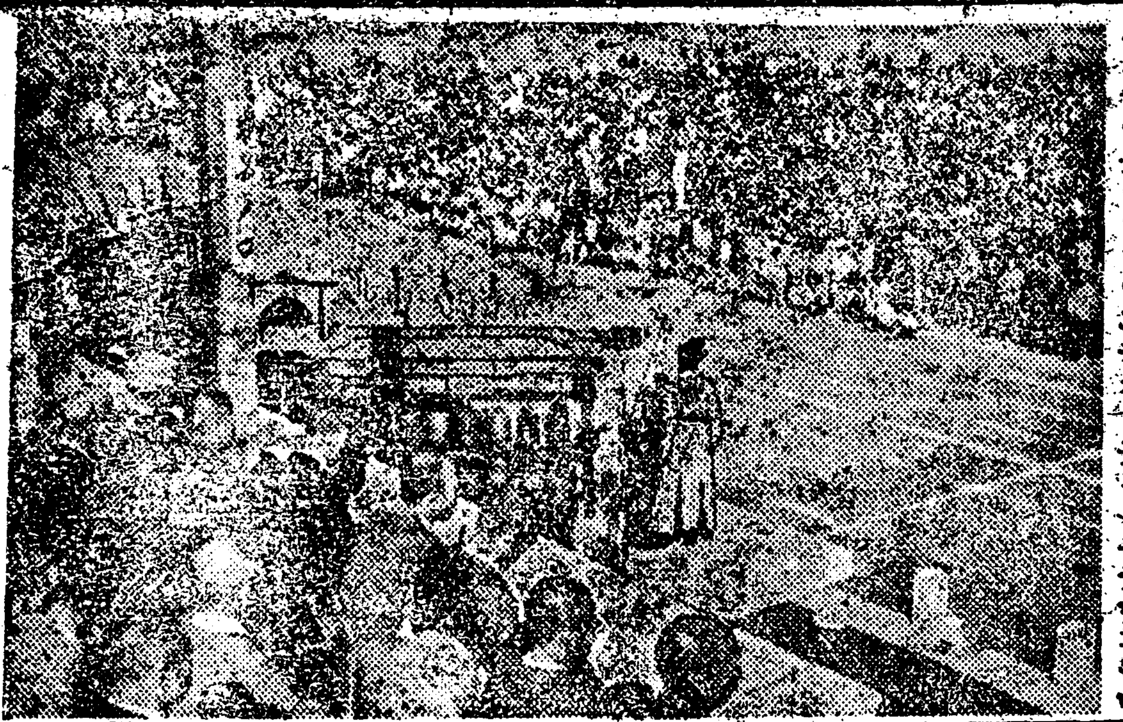
朝鮮土建日報社
朝鮮陸上競技聯盟
中央食堂組合
鍾路食堂組合
大福土建株式會社

有權者 各位

# 檀君聖祖를追慕
## 三千萬겨레의統一獨立祈念
## 서울의開天節奉祝式

十여의시로 단군(檀君)께옵서 강탄하시은지 실로사천이백七十九주년 바로음력 시월초사흔날 한정일을맞이하야 이거룩한기념일을 우리의가장큰 국경일로정한후 처음으로 이신천일 집집마다 국기를달고 각단체와각학교에서는 이날 봉축식을거행하야 삼천만겨레가 한결같이 감축하였거니와 이날 서울운동장에서는 개천절봉축준비위원회주최로 각계각단체대표가 한데뭉치어 봉축대회를 엄숙성대히거행하야 성조(聖祖)를추모하고 유구한반만년 한핏줄기의전통을 곰곰히 깨우쳐 국민전체의자기를 북돋은바 있었다

하늘도유심한듯 유난히 밝고높은이날 회장에는 각정당、각개단체、정치 일반、각남녀대학、중등 국민학교생도、무려만여 명이 청명한가을바람에 태극기를높이들고 정렬한가운데 열시정각 국기게양、애국가봉창 구왕궁아악봉주 조성환(曹成煥)씨의 개회사로 시작되여 그예날단군께옵서 신단수하(神檀樹下)에 나리시었다는 태백산(太白山)을향하야 경건하게 요배를한다음 대회회장 이시영(李始榮)씨로부터 성은봉찬사(聖恩奉讚辭)낭독이있은후 봉축사로드러가 이승만박사로부터 「단군은신(神)이안이요 신성한인물이니 이교하선 성조의자손인 우리들은 빛나는전통과 그성업을계승하야 민족이 한데뭉처서 하로바삐 자주국권을 누리지않으면 안된다」라고 웨친다음 이어서김구선생의 열렬한봉축사를 엄항섭(嚴恒燮)씨가 대독하였다 이어 고대빈축사로「아펜셀라」박사가「허ㅣ취」군정장관을대리하야 간절한말씀을하고 중국측대표 정원간(丁元幹)씨의「중국과조선은 각각민족이단결하야 서로손을맞잡고나가야할 운명에있다」는축사가있은후 개천절봉창에 뒤이어 오세창(吳世昌)씨 선창으로 대한독립만세를소리높이부르고 정오경 뜻깊은봉축대회를마치었다



(사진은대회광경)

## 水雲先生百廿二週年記念式

천도교(天道敎)에서는 十월二十八일이 제一세교조(敎祖)최수운(崔水雲)선생의 一백二十二주년기념일이므로 중일정오에 종로대강당에서 조기간(趙基栞)씨의식사와 이우영(李宇英)씨의기념사로 성대한기념식을 거행하고 축하「음악회」까지열었다

## 第三特報創刊

오래전부터 창간준비중에있든 일간(日刊)제삼특보(第三特報)는 二十八일 그창간호를발간하였는데 이자장은이용주(李容周)씨주필겸〇〇〇〇〇〇

## 立議 서울市議員候補
## 昨日三區에서十名을選出

임시립법의원(臨時立法議院)서울시대의원후보자선거는 예정대로이십팔일 서울시정동덕수국민학교에서아홉시부터시행되엿다 선거두표식이있은후 열시반부터 서울전지역(全地域) 갑을구(甲乙區)순서로 투표를시작하엿는데 각동(洞)대표투표자는 제각기선거장어구에 한줄로느러서서 차례차례로 먼저투표명부(投票名簿)에도장을찍고 투표지(投票紙)를받어 임시작만해노은 투표기재소(記載所)에한사람식드러가 붓으로 후보자이름과주소만을적은다음 세사람의입회인(立會人)앞에노인 투표함(投票函)에집어넣었다 이리하야 정오경투표를끝마치고 이옥고 개표인불입회하에 개표(開票)를하였는데 그결과투표자 오백삼십명중 오집삼명의 기권자가있었고 선출된 열명의후보자는 다음과같다

△甲選擧區
張德秀(七五票=韓民黨)
崔鳳夏(三五票=鳳翼洞會部員)
全浩華(二七票=獨立促成會)

△乙選擧區
南松鶴(三八票=韓獨黨)
金度演(三三票=韓民黨)
興誠煥(一〇票=獨立促成會)

△서울全地域
朴定根(一三五票=實業界)
金性洙(一〇七票=韓民黨)
呂運亨(一七票=人民黨)
張德秀(一七票)(韓民黨)

하면李承晩博士 그숭에는 이박사 김구 박헌영 김원봉 김규식 제씨등 각계요인의이름도 나왔으나 극소수이고 그리고 오는삼십일은 이열명의 후보자중에서 다시 대의원세명을 같은방법으로 투표선거하기로되였다

## 汝矣島戰災民 農場住宅落成

여의도(汝矣島)에는 금번오월이래 오십세대의 전재민이 신한공사(新韓公司)로부터 토지를어더 십만평의 전재민농장이 정작되고있었는데 그동안 서울시에서 이백만원의 비용으로 건축중이던 전재민주택이 완성되였음으로 三十일오전열시부터 「러ㅣ취」장관 서울시장이하 관계자 다수참석하에 낙성식을 거행하기로되였다 …국장은 이호종(李[illegible])씨이다

## 救國學生同明

좌우합작 七원칙을 전국적으로 선전하고 전취하고저 구국학생동맹(救國學生同盟)을 조직하고 다음과같은 강령을발표하였다

綱領

一、우리는 左右七原則을 原則的으로支持하야 促進實現케할것

二、우리는 極左極右를積極的으로 啓化하야 公正한左右를合作에한

三、우리는 民族的으로自覺하야 民族自決을期하고 民主主義獨立을 完全實現시킬것

## 大韓勞總機關區分會結成

용산(龍山)철도기관구종업원 일동은 지난이십오일 대한독립노총연맹(大韓勞總)산하에 가맹할것을결의하야 대한노총철도기관구분회를 결성하였다。

## 青山里싸움 (14)
[illegible] 記

이범석장군이 거처든마일본三八식기총(騎銃)고의 총구멍은 지금막뿜게 을집어들어 그은도문갓섰다 정해보는 멀서부터스파어인왜군지휘관의 심장을 향해있었다 그러고 우리속에 엎디여있는 우리독립군 전원모두한이가 목찬 총부리를 일제히 왜적을 향해거계들고지휘관의 신호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러나이군은 왜군전부에가 이공림지대안으로 다들어서기만을 기다려서야 신호할 심산이었던것이다 그는 잣나무 고목뒤에 꿀어앉아서 총대를나무에 의탁하고 어서속히 왜군전체가 이곡림지대의목안에 다들어서기만 초조히 기다리었다。 업석부터 소파는 다시 전군에게 행진을명하며 걷기시작했다 이리하여 기다란 몸뚱이잔이 아니 약한자의 피를빨아먹는 악한 구렁이같이 산골의 병정까지 들어서게되였다。 그리고드디어 면림지대안에 자득차게되었다 전진하는 왜군은 점점꽁문짜기의 굼볼거리며 …

다 실로이것은 안심하고 행진하던 일본군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었다 그놈은미처 총을 어깨에서 벗어들기도전 … 철풍전우(鐵風戰雨)였다 … 한편한조의 여유도주지않고 계속해서 …

## 標準記錄突破
### 一般에徐潤福君 中等沈福石君 優勝
### 마라손短縮大會盛況

이년후의 영국서울「런던」에서열일올림픽대회에「마라손조선」의제패를목표로지금부터 기술과 정신을북돋우어나가며는 조선마라손보급회주최와본사후원 제일회단축마라손대회는 해방후처음으로 마지한개천절 국경일이십칠일오후두시십분 서울백정가본사앞을출발하여 우이동(牛耳洞)왕복「코ㅣ스」십마일에서 청년조선의 끓는열전을 전개하였다 이날일반부에 십사명 중등부에삼십일명 도합 사십오명의 참가선수는 경기에앞서서 본사뒤뜰에서개회식을 거행키로하야 대회회장인 조선일보사장대리 홍종인(洪鍾仁)편집국장으로부터 대회의뜻깊음과파아울러선수들을 격려하는인사의말이있은후 심판장 권태하(權泰夏)씨의경기주의가있고 손기정(孫基禎)씨가「코ㅣ스」를설명한후 정각두시는

전가운 쌀쌀한바람을박차고 전원은군정청앞종로를거쳐서 시민들의열렬한격려박수를바드며 우이동을모다 오후세시삼십구분 한양공업대학앞에 쟁서윤복(徐潤福)선수가 표준기록한시간반을 돌파하야「한시간이십구분이십자초자」로본사앞「골」에들어섯다 뒤를이어서 양정(養正)심복석(沈福石)군이「골인」하여 중등부의우승을잡고 나머지선수들도 끝까지 열정분투하여 전「코ㅣ스」를주파하고 힘있게드러왔다 경기가끝난후 본사앞에서 표창식겸 폐회식에 드러가 우승자에게 이승만 김구 양씨의 기증「컵」을수여하고 만세삼창을불르고 해산하였다

◇寫眞은優勝한徐潤福沈福石兩君

大會成績

◇一般部

一着 徐潤福(漢陽工大)一時間二九分二四秒三 二着 李鍾鎬(鐵道)一時間三〇分四〇秒五 三着 李英濟(高麗大)一時間三四分四七秒五 四着 金道植(高大)一時間三五分五九秒 五着 金奎英(師大)一時間三九分一四秒五

◇中等部

一着 沈福石(養正)一時間三二分四一秒 二着 李君信(景福)一時間四一分二三秒五 三着 蔡春植(師大附屬中)一時間四三分七秒九 四着 朴鍾鉉(大東商業)一時間四四分四七秒九 五着 李學南(師大附屬中)一時間四六分五九秒三

## 園藝術座公演

해방후첫시험으로 젊은기록과 정년의 연극학도들이 조직한 원예술좌(園藝術座)에서는 그동안 힘찬 활약을 계속해오드니 종국단원사작가 이보라(李保羅)씨의 창작극「에미」를 이십구일부터 오일동안 낮은 한시、밤은여섯시부터 서울종로 기독교청년회 강당에서 상연하게되였다 입장권은 와신、동화양배잡점에서 예매하고있다

## 日氣豫報

▲豫報=京仁地方ー來日은北東風과東西風이弱하게불고 上午에는맑겠으나 下午에는차차흐리겠다
▲氣溫 最高十四度三分 最低二度七分


高級洋酒 Mercury
天一醸造株式會社
代理店·朴承稷商店·京城南大門

## 新刊紹介
▲以北通信 第二號 서울市太平路一街三一八社發行 定價二十五圓
▲週間小學生 第二十八號 서울市鍾路永保빌딩 朝鮮兒童文化協會發行
▲初等中等漢文讀本卷一 金敬琢編 서울市紅把町一一五 聚英庵發行 定價二十圓
▲열(集詩) 金敬琢作 서울市紅把町一一五 聚英庵發行 定價二十五圓

斷然再版！
雷雨 舞台化!!
物議를이르킨本社刊行(雷雨)가26日부터圓成社에서樂浪出演으로再次舞台化된다 用紙關係로部數가적으니 觀劇前에速히一讀하시라 (當日劇場內에서도팝니다)
서울鍾路一街二六
圖書出版 宣文社
電光3472番

朝鮮日報社 廣告部直通電話 本局②三三八四番

學習帳 量入荷 大荷 (在庫豊富)
中小學 學用品一切·製圖用紙
서울市乙支路(黃金町)六街一八 (黃六派出所後面)
文具紙房 國信洋行 電話東大門(5)2098番

明洞劇場 二十八日부터 다ー산의復讐 뉴ー스一九〇號 유나이뎃드

미선 各種中古品高價買入 賣品希望者는通知하시는대로出張推算買入함 서울市南大門路一街九九 [illegible]商會 電本②四〇二一番

腰痛 關節炎 治療全快 서울市太平路一街一八(消防署앞) 普恩藥房

## 大新中學校生徒募集
初級中學第一學年生 若干名
第二、三學年補缺生 若干名
出願期日 十一月五日까지
試驗期日 十一月六日부터
交通 西大門外電車終點下車
西大門外佛光里(電光三七八二)

## 朝鮮敎育品商會
中小學習帳 其他學用品一切 消耗品 新設學校設備品一切
서울 仁寺町二街二〇 本局七六二〇番 花園市場東側 가시는途中이올시다

## 青春劇場
創立一周年記念公演
金春光作
大院君 5幕
백성을위하야그一生을바친 興宣·大院王·李昰應의一代記!
安鍾和…演出 崔東照…照明 蔡南仁…裝置
27日부터
平日晝夜二回 낮一時 밤六時開演

## 一新刊案內一
朝鮮數物研究會編
中等新數學 四六判 ¥35圓 ┼3圓
文敎部敎授要目에依하야編纂한中學敎材 1, 2, 3卷中 1卷現在販賣中 2, 3高級用印刷中
數表 四六判 ¥12圓
初級부터高級까지共通 「中等數學」의附屬敎材에適當함
市內有名書店販賣中
서울市西大門路二街八九
朝鮮工業文化社出版部
電話光化門(3) 665番

大韓國建設의길은 陸地로發展하며 海上으로進出하는데있다 우리民族의 運營向上은 오죽 公法에依한 司直下의싸움에있다
本社 서울市中區茶洞一二一番地 大陸海運公司 社長 金永基
支社 仁川市海岸洞一街三番地 大陸海運公司仁川支社
出張所 群山、木浦、浦項、釜山、馬山、麗水、三陟、其他各地